

“

제주여행 TIP

‘유익한 여행을 위한 가이드’



점의 여행 vs 선의 여행

제주도의 여행 패턴

제주도 공식 사이트에는 약 180여 개의 관광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미술관이나 계절 별 정원 혹은 비밀의 자연경관을 합하면 거의 250여 개로 추정된다.

제주도 여행사의 일일투어는 서부와 남부 및 동부로 나누어서 각 지역에 대표적인 곳 5~6 곳을 안내함으로써,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아도 최소한 3일이 소요된다.

점의 여행

차량으로 이동하는 여행자는 A, B 보고 이동해서 점심먹고, 또 이동해서 C,D 보고, 카페가서 쉬고 또 이동해서 E,F로 가야만 한다.

점의 여행 vs 선의 여행

선의 여행

{제주디지털관광센터}에서 안내하는 제주여행은 ‘선의 여행’이다.

어차피 제한된 시간에서의 여행이라면 필수코스와 선택코스를 구분하고, 하루 2~3개를 보더라도 깊이 있고 여유롭게 보자는 의미다.

차이점 비교 01.

제일 큰 차이점은 차량 이동시간이다.

하루 일정에서 점의 여행은 이동시간이 3~4시간이라면, 선의 여행은 그 시간의 반이면 충분하다.

그 차이만큼 여유롭고 실속있게 즐기는 방식이 선의 여행이자 테마여행이다.

점의 여행 vs 선의 여행

차이점 비교 02.

피로도의 누적이다. 점의 여행은 하루에 최대한 많은 곳을 보아야 한다.

3~4일 지속되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어린아이나 어르신에게는 감기 몸살이 온다.

차이점 비교 03.

점의 여행은 바쁘고 산만하다. 와서 보았지만 남은 것이 없다.

선의 여행은 테마가 있고 '제주디지털안내센터'에서 제공한 자료 파일이 있고 인증샷이 있다.

유익한 여행으로서 오래도록 추억으로 남는다.

삶이란 곧 선택이지요!

"오,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못 보고 와 버린
쓸쓸한 여행이여"

태평양에 떠 있는 작은 섬 제주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생태관광의 보물섬이다.

근데, 시간은 짧고 볼 곳은 많고~

선택의 시간이 왔네요!